

광주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

광주시가 국내 주요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과 협력 강화로, AI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페스타(Festa) 2025'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내외 AI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AI·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AI 페스타를 계기로 국내외 혁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열린 AI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AI 페스타'와 연계해 AI반도체 설계 유니콘 기업인 리벨리온(주)과 보안반도체 전문기업인 ㈜오스틴일렉트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성현 리벨리온(주) 대표이사, 이재열(주)오스틴일렉트릭 대표이사, 오상진 인공지능사업담당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이들 기업은 협약에 따라 광주 AI 인프라 기반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역기업 협력을 통한 산업 적용 및 상용화, AI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확대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앞으로 'AI 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국산 반도체 기술의 검증·상용화, 기업 성장 지원, 전문 인재 양성을 총칭하여 AI·반도체 생태계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리벨리온(주)은 광주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활용해 자사의 AI·반



강기정 시장이 30일 서울에서 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벨리온, 보안 반도체 전문기업 오스틴일렉트릭과 '광주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광주시-AI유치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재열(주)오스틴일렉트릭 대표이사, 강기정 시장, 박성현 리벨리온(주) 대표이사.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시장, 서울 'AI 페스타'서 과기부 장관과 환담 유니콘기업 리벨리온·오스틴일렉트릭과 MOU 체결

반도체(NPU)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사용하는 지역기업들이 해당 반도체를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지원해 국산 AI 반도체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특히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지난 7월부터 광주시 AI총괄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의 AI·반

도체 육성 정책과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대표는 "광주는 AI 데이터센터와 산학연 협력 기반 등 실증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의 AI 반도체가 광주에서 검증·활용되고 지역기업과 함께 실제 성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오스틴일렉트릭은 국방·공공·금융·통신 인프라, 자율주행차용 센서 등 보안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자내성(PQC) 암호화 칩을 개발하고 실증·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안전한 보안 기술을 제공해 지역산업 보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열 오스틴일렉트릭 대표는 "광주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 보안 반도체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직거래장터 서울 시민에 통했다

노원구서 역대 최대 매출 5억...업체당 평균 2배 ↑

전남도가 서울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직거래장터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개최한 '전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 행사'를 통해 총 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 지역 53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개 품목의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선보였다. 5만여명이 방문해 준비 물량이 조기 매진되는 등 서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개장 첫날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등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일부 업체는 3일간 판매 예상 물량이 개장 첫날 모두 소진돼 급히 전남으로 돌아가 물량을 추가로 공수해 오기도 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단순히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00개 업체가 참여해 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53개 업체만으로 약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업체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번 행사는 아파트 밀집 중심지인 노원구 근린공원에 개최해 실질적인 소비 고객을 대거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첫날 구매 후 제품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다음 날 재구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부스 배치 방식을 기존 시·군별 배치를 벗어나 품목별(과일, 김치, 농산물, 수산물 등) 배치로 구매자들의 동선을 간소화하고, 상품 식별을 용이하게 해 매출을 올리는데 한몫 했다.

여기에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남도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2회 진행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것도 구매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과일, 김, 전복 등 다양한 시식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신뢰를 높인 것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노원구와 광주전남시도민회, 향우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전남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0월 9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부 개방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시민들 바람개비 퍼포먼스...시민 안전·편의 대책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부가 개방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인왕봉 상시 개방 이후 무등산 정상 경관 개방을 요청한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이날 무등산 정상부를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방행사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내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염원을 한마음으로 모은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 등을 관광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구간이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군부대 출입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 군사보안을 이유로 외국인 출입이 제한되며, 인왕봉은 누구나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다.

광주시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에 질서계도 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119 구급차량과 헬기를 대기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차량 혼잡구간인 충장사~원효사 주차장, 윤림중학교~증심사 입구에서 불법 주차차를 통제한다.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1년 첫 개방행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26회 개방해 48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정상 개방은 무등산이 세계적 명산임을 알리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정상 개방일에 탐방객들의 안전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여순사건 유족회 추념식 대통령 참석 건의

전남도와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회는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하는 공동 건의문을 지난 2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대통령의 직접 참석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함께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대한 위로와 화해, 그리고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7년간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어줄 가장 큰 길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한 말씀, 한 걸음이 수 많은 유족들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 참석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추념식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하는 전국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계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 선임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정책통' 활약 기대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광주·전남 의원 3명이 활동한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명 중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은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조계원(전남 여수을·사진) 의원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 가운데 조 의원은 유일하게 과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했던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산심사소위는 정부 예산·결산안을 최종적으로 삭감·증액에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0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면 이를 최종 확정짓는 일은 1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산업·교통·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수석을 지내는 등 정책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기획재정부 부처와의 협조를 끌어 내며 광주전남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여수·금호별 아레나 건립 △남서해안-여수 직선 고속철(가칭 반도 KTX) 건설 △여수공항 활주도 연장 및 국제선 기반 마련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대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지자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